

*사진 출처 : 에스더사모영성회



numbers
vol. 327

소형교회 사모의 삶과 사역 실태

소형교회 사모 대부분, 최근 3년 내 육체 · 정신적 건강 위기 겪어!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자살 사망자 실태
- ②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와 기여도

2026. 3. 17.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소형교회 사모 대부분, 최근 3년 내 육체·정신적 건강 위기 겪어!

목회자와 함께 사역의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사모들의 현실은 어떠할까? 이번 호에서는 한국교회 사모의 삶과 사역에 대해 조명해본다.

본 조사는 사랑의교회에서 주최한 제4회 한교섬(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참가한 사모(소형교회 중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사모 10명 중 9명에 가까운 이들이 최근 3년 내 육체적·정신적 건강 위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역의 무게는 대물림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져, 사모 37%는 자신의 자녀나 손주에게 이 길을 권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변화의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 사모 10명 중 4명 이상(44%)은 성도들이 사모의 경제 활동을 이해해 줄 것이라 기대하며, 현실적인 부담과 자아실현 사이에서 새로운 출구를 모색하고 있었다. 또한, 사모 소그룹 등 자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사명을 이어가는 연대의 힘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넘버즈 327호>가 단순히 사모의 고충을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소진된 마음을 위로하며 교회 공동체가 사모의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지지하는 건강한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교섬(한국교회 섬김의 날) 사모 실태 조사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한교섬(한국교회 섬김의 날) 참가한 사모 (소형교회 중심)
표본 규모	총 242명 (유효 표본)
조사 기간	2025년 10월 27일~10월 31일 (5일간)
표본 추출	참가자 전수조사
조사 방법	모바일 자기 기입식 조사 (현장 조사)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주체	사랑의교회
조사 수행 기관	목회데이터연구소

주요 표본 구성

구분		사례수(명)	비율
배우자 목회 유형	담임목사	(229)	94.6%
	부교역자 및 기타	(13)	5.4%
시무교회 규모	30명 미만	(162)	66.9%
	30~50명 미만	(39)	16.1%
	50~100명 미만	(26)	10.7%
	100명 이상	(15)	6.2%

*본 조사의 경우 교회 규모가 50명 이상인 경우가 전체 표본의 17%정도 되고 있으나, 대부분 표본이 50명 이하 교회의 사모들임으로 분석시 평의상 '소형교회 사모'로 표현 했음에 유의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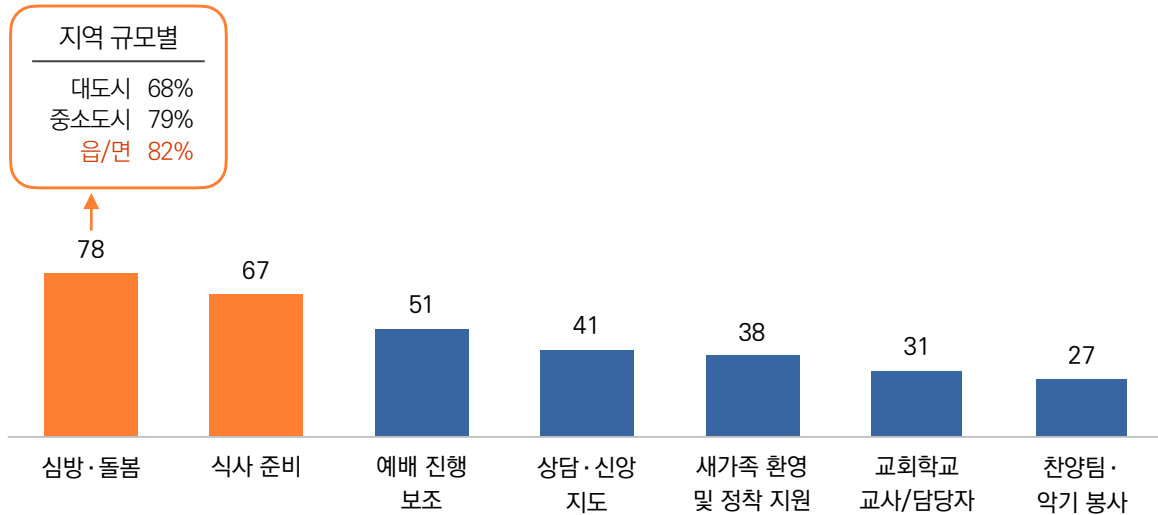
01

[사모 역할]

소형교회내사모의역할, '심방·돌봄'과 '식사준비'가가장많아

- 사모들이 교회에서 맡고 있는 역할(복수응답)을 살펴본 결과, '심방·돌봄'이 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식사 준비(67%), 예배 진행 보조(51%), 상담·신앙 지도(42%), 새가족 환영 및 정착 지원(38%)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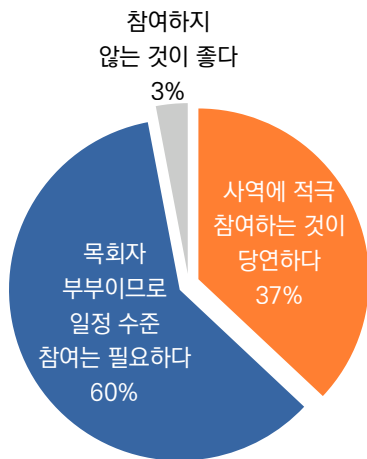
[그림] 교회에서의 역할 (사모, 복수응답, 상위 7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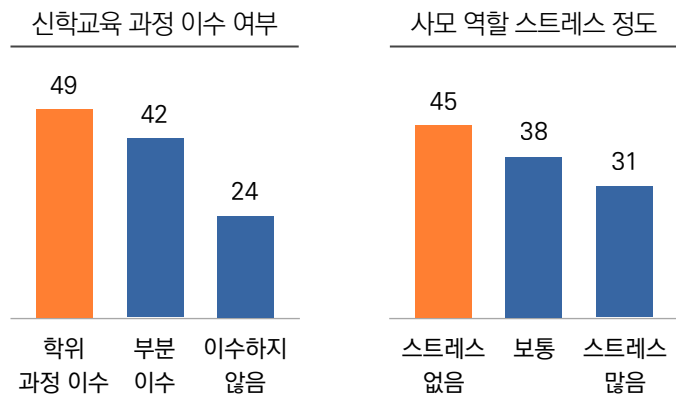
절대 다수의 소형교회 사모, '사모의 교회 사역 참여 필요성' 공감!

- 소형교회 사모의 교회 사역 참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목회자 부부이므로 일정 수준 참여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60%로 가장 높았고, '사역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응답도 37%로 나타났다. 대다수 사모(97%)가 교회 사역 참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또한 신학 교육 경험이 있는 사모일수록 '사모는 교회 사역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사모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라도 차이가 나타나, 스트레스가 없는 경우(45%)가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31%)보다 사모의 적극적 사역 참여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사모의 교회 사역 참여에 대한 의견 (사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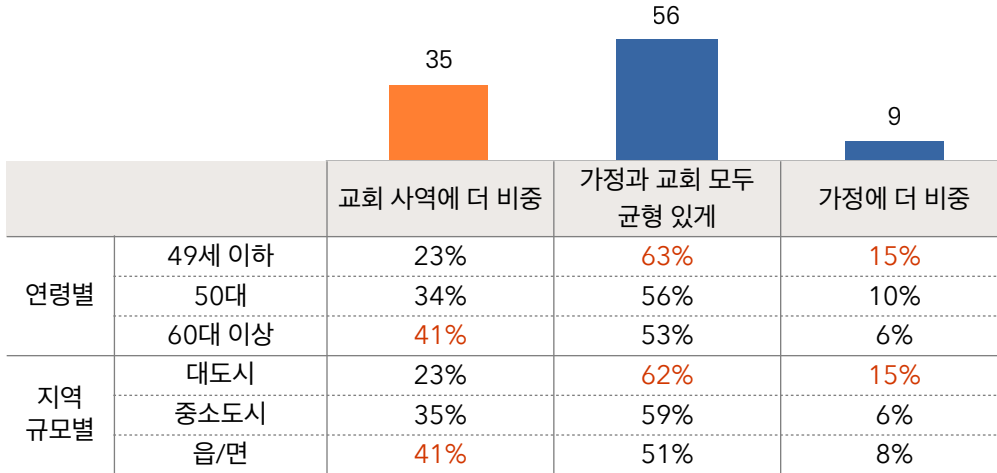
[그림] 계층별 사모로서 교회 사역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 비율 (사모, %)



소형교회 사모 3명 중 1명 이상, 가정보다 교회 사역 우선!

- 가정과 교회 사역의 균형에 대해 소형교회 사모들에게 묻은 결과, '교회 사역에 더 비중을 둔다' 35%, '가정에 더 비중을 둔다' 9%로 가정보다 교회 사역에 우선권을 두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 연령과 지역 규모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읍/면 지역일수록 '교회 사역에 더 비중을 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가정과 사역의 균형 정도 (사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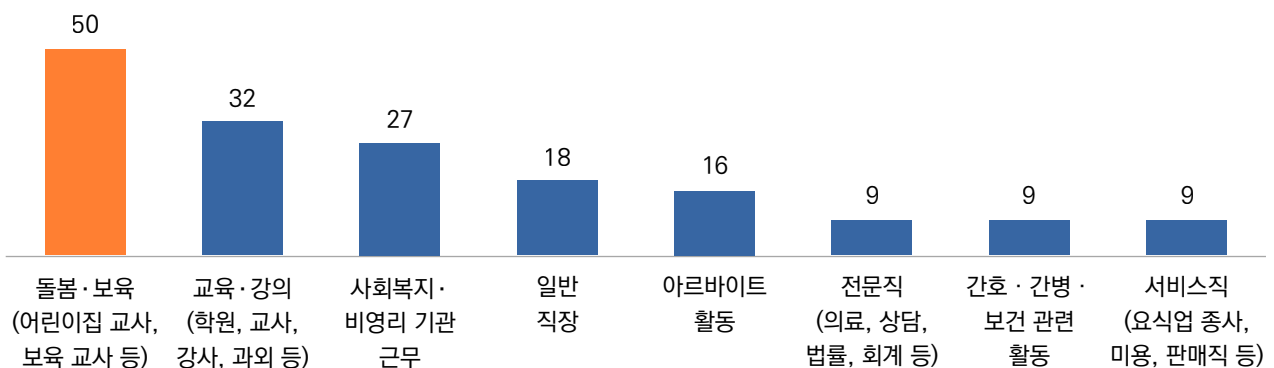


02

[사모의 현실: 직업과 가정] 소형교회 사모의 직업, '돌봄·보육' 분야가 절반!

- 사모가 된 이후 가진 직업(과거 일했거나 현재 일하는 사모, 중복응답)을 살펴본 결과, '돌봄·보육' 분야(50%)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육·강의'(32%), '사회복지·비영리 기관 근무'(27%), '일반 직장'(18%) 등의 순이었다.
- 전반적으로 돌봄·교육·복지와 같은 사람을 직접 돕고 돌보는 분야의 직업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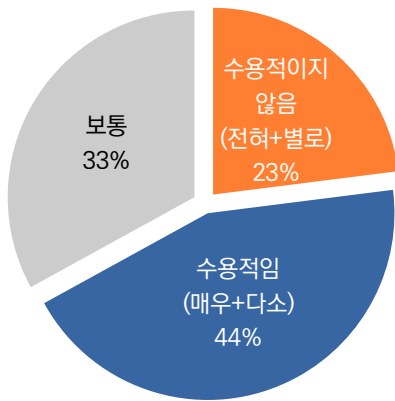
[그림] 사모가 된 이후 가진 직업 (과거 일했거나 현재 일하는 사모, 복수응답, 상위 8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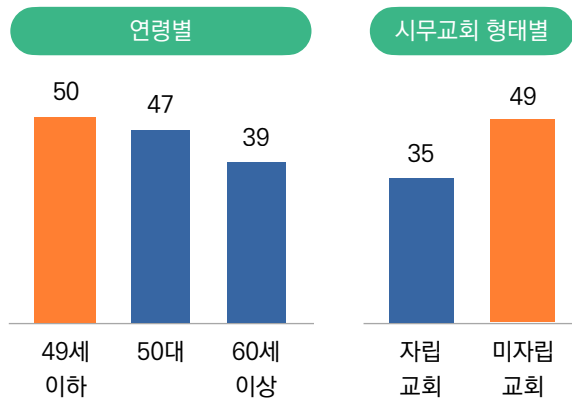
사모가 본 성도들, 10명 중 4명 이상(44%)은 '내가 직업 갖는 것 이해해 줄 것!'

- 교인(성도)들이 사모가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묻은 결과, '수용적이다'(44%)라는 응답이 '수용적이지 않다'(23%)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 특히 사모 연령이 낮을수록(49세 이하 50%) 교인들의 수용적 태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미자립교회(49%)의 경우 사모의 직업 보유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경향을 보였다.

[그림] 사모의 직업 보유에 대한 성도들의 수용도 (사모)



[그림] 계층별 사모의 직업 보유에 대해 '수용적임' 비율 (사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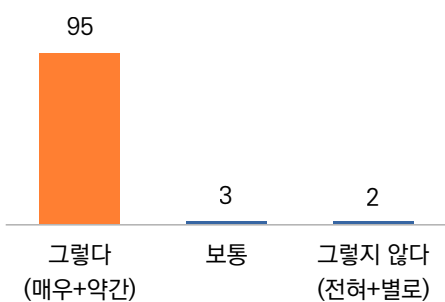
03

[소명과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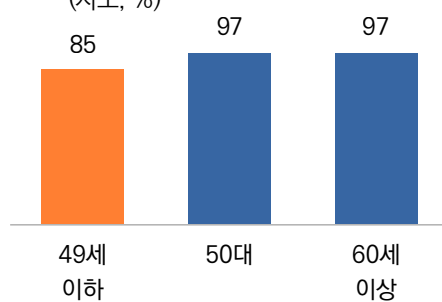
사모 대다수(95%), '사모 역할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 사모로서의 역할이 '하나님의 부르심(소명 의식)'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은 결과, 사모의 95%가 이에 동의해 대다수의 사모가 사모 역할을 하나의 소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연령별로 보면 49세 이하의 사모(85%)의 경우 사모로서의 소명 의식이 50대 이상(97%)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젊은 세대 사모일수록 사모 역할을 소명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다소 약한 경향을 보여준다.

[그림] 사모 역할에 대한 소명 의식 인식도 (사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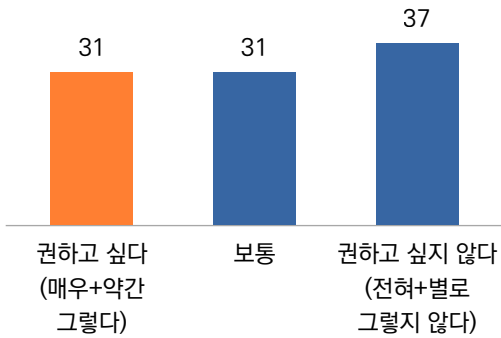
[그림] 연령별 '사모 역할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동의율 (사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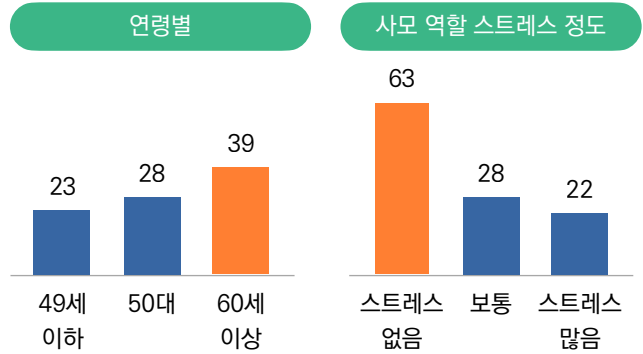
소형교회 사모 37%, '자녀·손주에게 사모 역할 권하고 싶지 않다'!

- 사모라는 역할을 자녀·손주 세대에 권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은 결과, '권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37%로 가장 높았으며, '권하고 싶다'는 응답은 31%, '보통'은 31%였다. 전반적으로 사모 역할을 다음 세대에 권하는 데에는 다소 소극적인 인식을 보였다.
- 한편 '사모 역할을 다음 세대에도 권하고 싶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60세 이상 39%) 증가했으며, 사모 역할에서 스트레스가 없는 경우(63%)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그림] 사모 역할을 자녀·손주 세대에 권하고 싶은 의향 (사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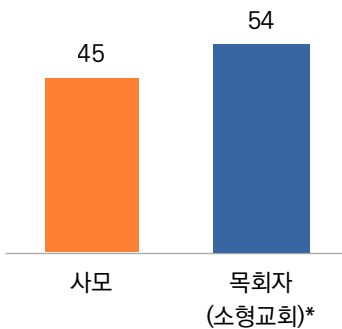
[그림] 사모 역할을 자녀·손주 세대에 '권하고 싶다' 비율 (사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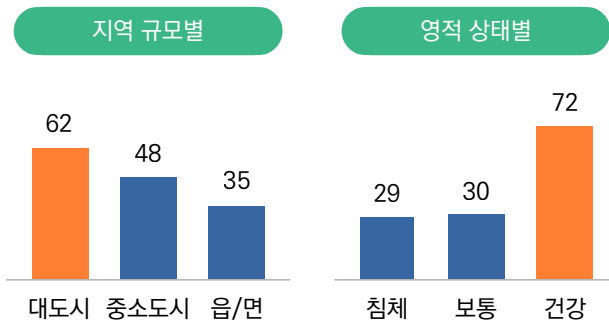
소형교회 사모 삶의 만족도 45%, 목회자(54%)보다 낮아

- 전반적 삶의 만족도(매우+약간 만족)를 살펴보면 소형교회 사모의 만족도는 45%로 나타나, 소형교회 목회자(54%)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사모 조사 응답자의 83%가 50명 미만 소형교회 사모인 점을 고려해 동일한 규모의 목회자와 비교한 결과임)
- 한편 사모의 삶의 만족도는 거주 지역과 개인 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대도시 거주 사모(62%), 영적 상태가 건강하다고 응답한 경우(72%)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전반적 삶의 만족도 ('매우+약간 만족' 비율**, %)



[그림] 계층별 전반적 삶의 만족도 (사모, '매우+약간 만족' 비율**, %)



*목회자 조사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하나복나라복음DNA네트워크, 소형교회 조사 결과 보고서, 2026.02.(50명 미만 소형교회 시무하는 담임목사 300명, 모바일 조사,2025.09.22.~10.03.)

**5점 척도

Note) 사모 조사 응답자 특성에서 '50명 미만 소형교회 사모'가 83%로 나타난 점을 고려해 만족도도 일반 목회자가 아닌 소형교회 목회자와 비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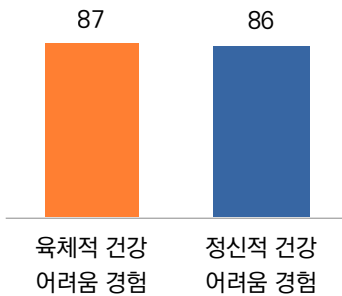
04

[건강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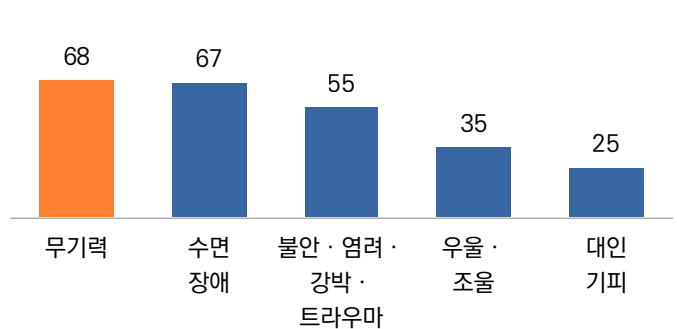
소형교회사모 대부분, 최근 3년 내 육체·정신적 건강 위기 겪어

- 소형교회 사모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3년 내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했는지’를 물었다. ‘육체적 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87%, ‘정신적 건강의 어려움 경험률’도 8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특히 정신적 건강의 어려움으로는 ‘무기력’(68%)과 ‘수면장애’(67%)가 가장 많았으며, ‘불안·염려·강박·트라우마’(55%), ‘우울·조울’(35%) 응답도 적지 않았다. 사모들의 정신 건강 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최근 3년 내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어려움 경험 (사모, '있음'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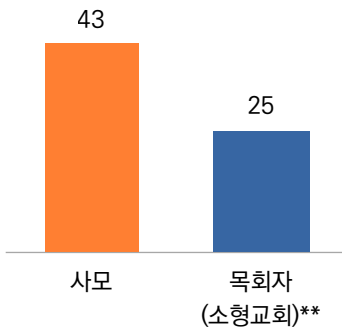
[그림] 최근 3년 내 경험한 정신 건강의 어려움 유형 (정신 건강 어려움 경험 사모, %)



소형교회 사모(43%)의 번아웃 수준, 목회자(25%)보다 훨씬 높아!

- 사모들에게 요즘 번아웃 상태인지* 여부를 물은 결과, 사모의 43%가 현재 번아웃 상태라고 응답했다. 이는 목회자 번아웃 비율(25%) 대비 훨씬 높은 수치로, 사모들의 사역 및 생활 피로감 수준이 상당함을 보여준다.

[그림] 번아웃 ('번아웃 상태에 있는 것 같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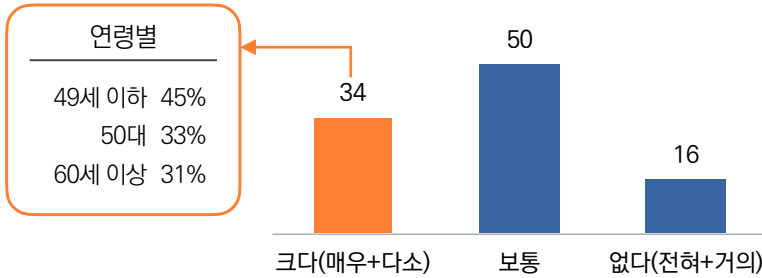
*번아웃이란 여러 요인에 의해서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느끼면서 무기력해지는 상태를 말함.

**목회자 조사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희망친구 기아대책/한국월드비전, 한국교회 트렌드 2025, 2024.09.(전국 담임목사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05.17.-06.03.)

소형교회 사모 3명 중 1명(34%), 교회 사역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 높다!

- 교회 사역 관련 스트레스 정도를 묻은 결과, '크다'(매우+다소)고 응답한 사모가 3명 중 1명(34%)이었고, '보통' 50%, '없다(전혀+거의)'는 응답은 16%였다.
- 특히 사모 연령이 낮을수록 사역 스트레스가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 점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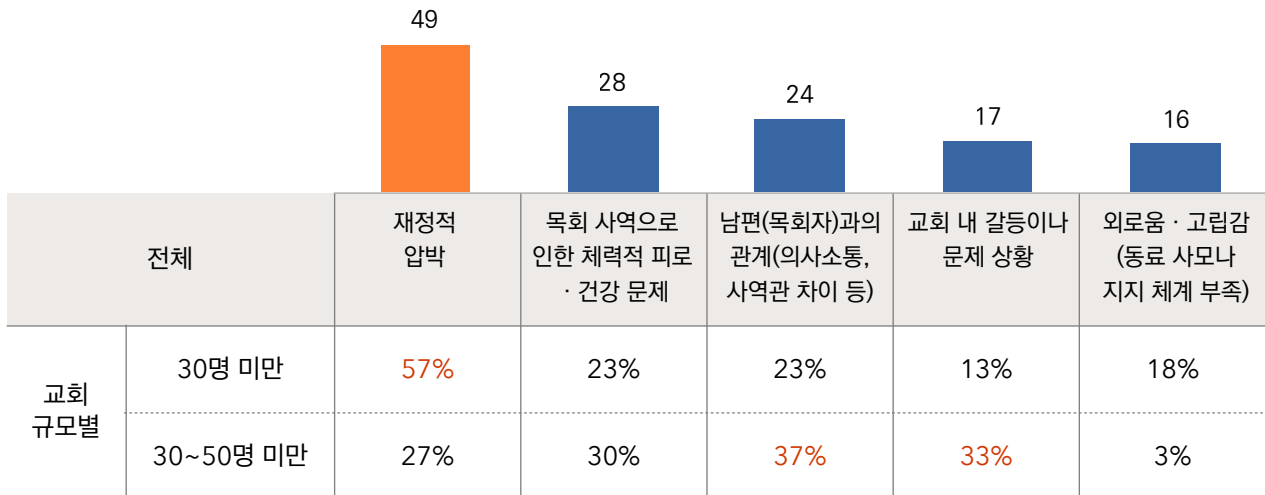
[그림] 교회 사역 관련 스트레스 정도 (사모, %)



사모 스트레스 1위, '재정 문제'!

- 그럼, 교회 사역과 관련해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모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절반(49%)이 '재정적 압박'을 꼽았다. 이어 '목회 사역으로 인한 체력적 피로·건강 문제'(28%), '남편(목회자)과의 관계'(24%), '교회 내 갈등이나 문제 상황'(17%) 등의 순이었다.
- 특히 '재정적 압박'을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은 비율은 특히 출석 교인 30명 미만 교회 사모(57%)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교회 사역 관련 주요 스트레스 요인 (스트레스 경험 사모, 1+2순위, 상위 5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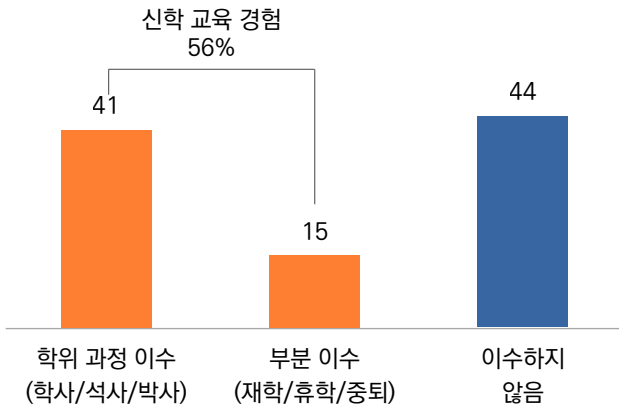


05

[사모 개인 생활] 사모 절반 이상(56%), 신학 교육 경험 있다!

- 사모들의 정규 신학 교육 과정 이수 여부를 살펴본 결과, 학위 과정(학사·석사·박사)을 이수한 비율은 41%로 나타났다. 여기에 재학·휴학·중퇴 등 부분적으로 교육 과정을 경험한 비율(15%)까지 포함하면, 사모의 절반 이상(56%)이 신학 교육 과정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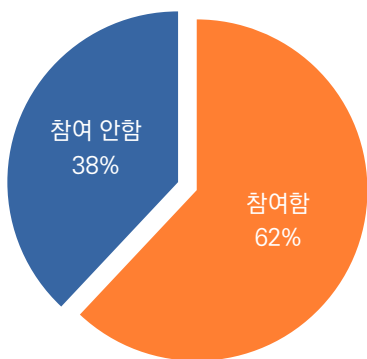
[그림] 신학 교육 과정 이수 여부 (사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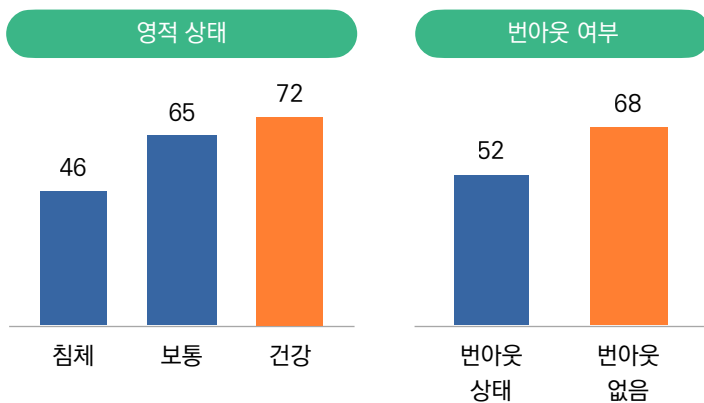
소형교회 사모 62%, 서로 마음 나누는 ‘사모 소그룹’ 참여!

- 사모 간 마음을 터놓고 교제할 수 있는 사모 소그룹 참여 여부를 묻은 결과, 사모의 62%가 사모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영적 상태가 건강하다고 응답한 사모(72%)와 ‘번아웃이 없는 사모’(68%)에서 사모 소그룹 참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사모 소그룹이 영적·정서적 안정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사모 소그룹 참여 여부* (사모)



[그림] 계층별 사모 소그룹 ‘참여함’ 비율 (사모, %)



*4점 척도(참여한 적 없다, 과거에는 참여했으나 지금은 안함, 가끔 참여, 현재 정기적으로 참여함)

이번호 요약

1. 소형교회 사모 대부분, 최근 3년 내 육체·정신적 건강 위기 겪어!

- 최근 3년 내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했는지를 묻은 결과, 육체적 건강의 어려움 경험률은 87%, 정신적 건강의 어려움 경험률도 86%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2. 소형교회 사모 삶의 만족도 45%, 목회자(54%)보다 낮아!

- 소형교회 사모들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매우+약간 만족)는 45%로, 소형교회 목회자(54%)보다 낮았는데, 이는 사모들의 삶이 목회자의 삶보다 더 힘겨움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3. 소형교회 사모 62%, 서로 마음 나누는 '사모 소그룹' 참여!

- 사모 소그룹 참여 여부를 묻은 결과, 사모의 62%가 현재 사모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서적] 목회자의 아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김남준 저, 두란노)

관련 성경 구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목회 적용점

이번 조사는 재정적 어려움에 물려있는 소형교회 사모들의 삶이 많이 지쳐있음을 보여준다. 사모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육체적/정신적 건강 위기를 겪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45%)가 목회자(54%)보다 낮다는 결과는 그동안 사모의 헌신에만 의존해 온 사역 구조에 깊은 성찰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사모가 스스로를 돌보며 사명을 지속하기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언한다.

첫째, '사역의 조력자' 이전에 '한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존중해야 한다. 사모는 목회자의 아내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인격체이다. 교회는 사모에게 무조건적 희생을 강요하기보다, 사모 개인의 은사와 자아실현(경제활동 등)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사모가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가꿀 때, 목회자의 사역도 안정될 수 있다.

둘째, '공감과 연대'의 네트워크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사모의 62%가 참여 중인 '사모 소그룹'은 고립감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통로이다. 교회와 노회 차원에서 사모들이 안전하게 마음을 나누고 위로받을 수 있는 자발적 소그룹/네트워크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과 영적 돌봄이 결합된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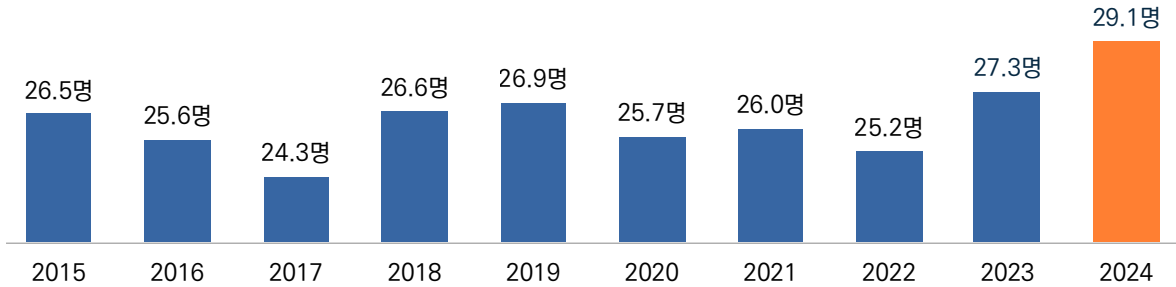
1. 자살 사망자 실태
2.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와 기여도



[자살 사망자 실태] 자살률, 최근 10년 새 최고치 기록!

- 최근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자살률 추이를 살펴본다.
-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자살률’은 2024년 29.1명으로, 최근 10년 새(2015~2024)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2023년과 2024년 연속 2년째 상승세를 보였다.

[그림] 자살률 추이 (인구 10만 명당)



※출처: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 발간, 2026.03.05.

10~40대까지 사망원인 1위는 ‘자살’!

- 이번에는 2024년 사망원인통계(국가데이터처) 결과를 통해 연령별 사망원인을 살펴본다. 10~40대까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었는데, 특히 40대는 2023년과 사망원인 순위 1,2위가 뒤바뀐 경우라 주목된다.* 반면 50~60대는 자살이 각각 2위, 4위에 랭크됐다.
- 특히 10대, 20대의 경우 사망원인의 절반 정도가 자살이어서, 이들 연령대에 자살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표] 연령별 5대 사망원인 및 구성비 (2024)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위	자살 48%	자살 54%	자살 44%	자살 26%	암 35%	암 41%
2위	암 12%	암 11%	암 15%	암 25%	자살 12%	심장 질환 8%
3위	운수사고 9%	운수사고 7%	심장 질환 5%	간 질환 9%	심장 질환 8%	뇌혈관 질환 6%
4위	심장 질환 3%	심장 질환 2%	간 질환 5%	심장 질환 7%	간 질환 8%	자살 5%
5위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3%	뇌혈관 질환 2%	운수사고 4%	뇌혈관 질환 5%	뇌혈관 질환 6%	간 질환 4%

※출처: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2024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202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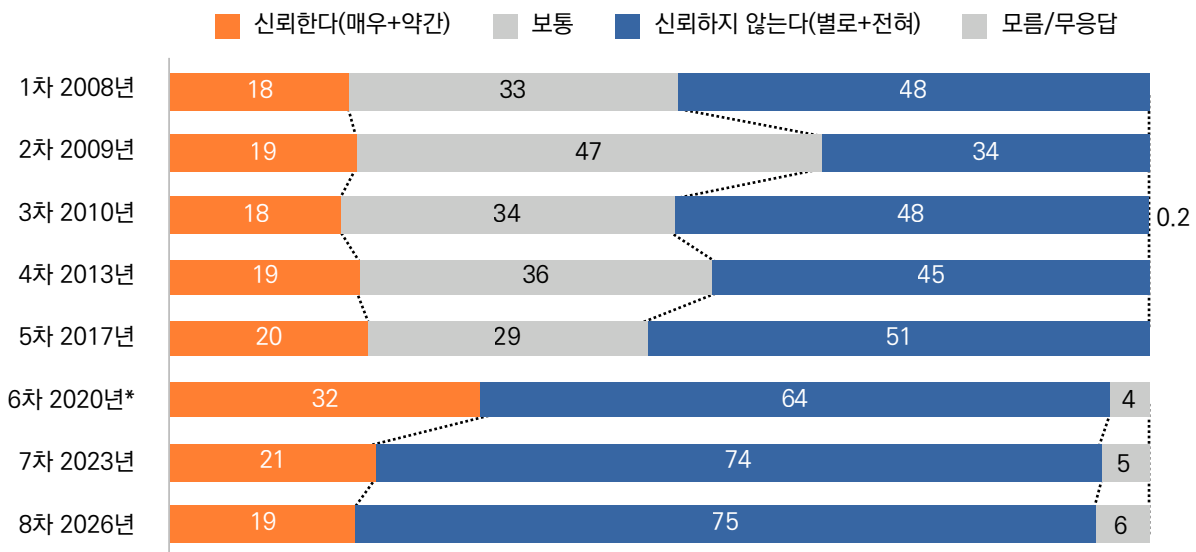
*참고: 2023년 40대 1위 암(26%), 2위 자살(23%) 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와 기여도] 국민 4명 중 1명만 한국 교회 신뢰해!

- 한국교회를 향한 사회적 인식은 어떠한지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의 최근 '2026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 한국교회에 대해 '신뢰한다'는 비율은 국민의 19%, '신뢰하지 않는다' 75%로, 불신이 신뢰보다 4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국민 4명 중 1명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직전 7차조사(2023년) 결과와 비교해 한국교회 신뢰도는 2%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한국교회의 전반적 신뢰도 추이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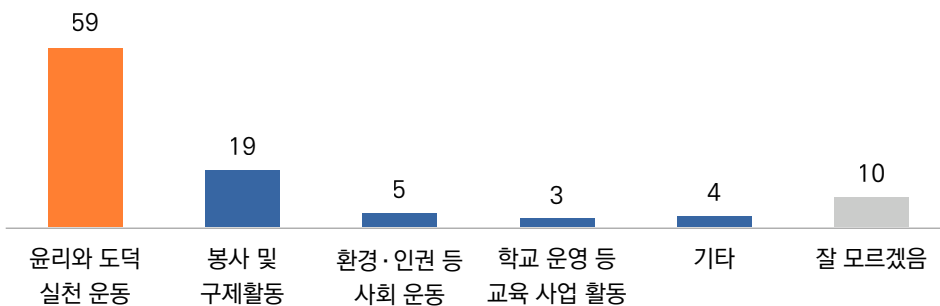
※출처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6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자료집, 2026.02.27.(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 온라인 조사, 주)지앤컴리서치, 2026.01.05.~01.10.)

*6차 2020년 조사 : 6차조사(2020년)부터는 이전 5차까지와 달리 5점 척도에서 보통을 제외하고 4점 척도로 질문하였음.

한국교회 신뢰 제고 위한 활동,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이 압도적 1위!

- 한국교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활동으로는 '윤리·도덕 실천 운동'(59%)이 1위로 꼽혔다.
- 1위 응답이 봉사/구제활동(19%)이나 사회 운동(5%), 교육 사업 활동(3%) 등 다른 항목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우리 국민들이 교회에 바라는 것이 단순히 외연적 사업 확장이 아니라, 교회의 윤리·도덕적 권위를 회복하는 것(내적 정결함)임을 보여준다.

[그림]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활동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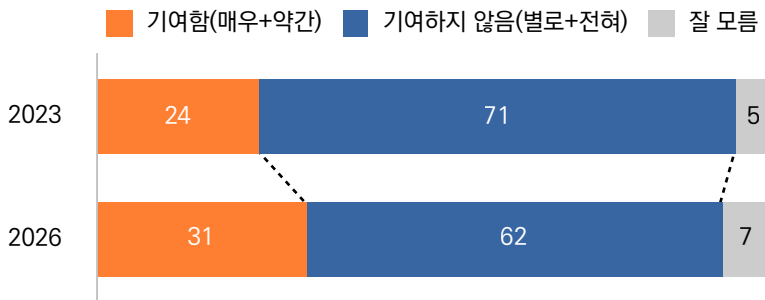


※출처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6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자료집, 2026.02.27.(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 온라인 조사, 주)지앤컴리서치, 2026.01.05.~01.10.)

한국교회 사회 기여도 인식, 3년 전보다 긍정 평가 7%p 상승!

- 한국교회의 사회 기여도에 대한 국민 인식을 살펴보면, 2026년 기준 ‘기여한다(매우+약간)’는 31%, ‘기여하지 않는다(별로+전혀)’ 62%로 나타나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2배 높았다.
- 다만 2023년 조사와 비교하면 ‘기여한다’는 응답이 24%에서 31%로 7%p가량 증가해, 한국교회의 사회 기여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이 다소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그림] 한국교회 사회 기여도 평가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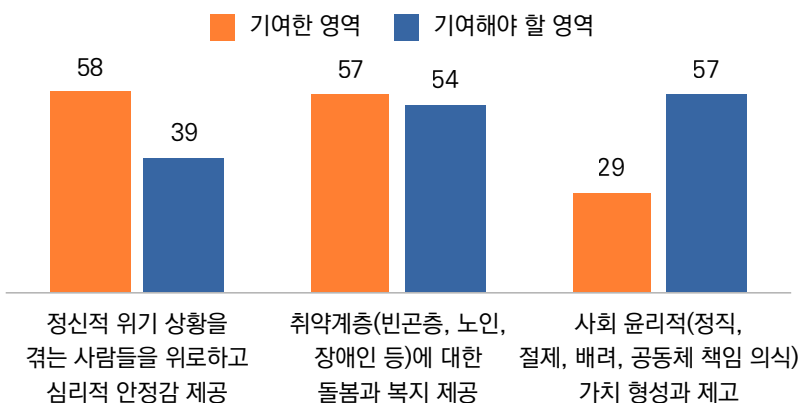


※출처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6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자료집, 2026.02.27.(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 온라인 조사, 주)지앤컴리서치, 2026.01.05.~01.10.)

국민이 기대하는 한국교회 역할, ‘위로와 돌봄’에서 ‘사회윤리적 가치 형성’으로

- 현재 교회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영역으로는 ‘정신적 위로·심리적 안정 제공’(58%)과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과 복지’(5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반면 향후 교회가 사회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영역은 ‘정직, 절제, 배려, 공동체 책임의식 등 사회 윤리적 가치 형성’(57%)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취약계층 돌봄과 복지’(54%), ‘정신적 위로 및 심리적 안정 제공’(39%) 순이었다.
- 현재 사회 기여 영역과 향후 기대 영역을 비교해 보면, 국민의 기대 방향이 단순히 ‘위로나 돌봄’ 중심의 역할을 넘어 ‘사회 윤리적 가치를 형성하고 확산’하는 역할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한국교회가 사회에 기여한 vs 기여해야 할 영역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1+2순위, 상위 3개, %)



※출처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6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자료집, 2026.02.27.(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 온라인 조사, 주)지앤컴리서치, 2026.01.05.~01.10.)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55호 \(2026년 3월 2주\)](#)

- 정당별 호감도,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76호 \(2026년 3월 2주\)](#)

- 국정운영 평가, 지방선거 성격, 사법개혁 3법 인식, 공정성 인식

사회 일반

["작년 서울 개인 파산 신청 60대 이상, 10명 중 6명꼴"](#)

조선일보_2026.3.10.

[국내 입양 잘 안되는 이유는 "혈연 중심의 가족 문화 때문"](#)

연합뉴스_2026.3.15.

["빈소 없애고 3일장 안 해요"...고인의 마지막길, 추모도 조용해진다](#)

매일경제_2026.3.12.

[\[2026 세대인식조사\] 세대갈등 현황](#)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6.3.10.

[\[2026 대중인식조사\] 한중 관계 진단과 협력 과제, 정상회담 평가](#)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6.3.11.

[2026 점, 사주, 타로 등 점술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6.3.12.

[유학생 30만시대], (연합뉴스)

① ["우리학교는 돌중 한명이 외국인"...캠퍼스도, 도시도 달라졌다](#) _2026.3.14.

② ["주 40시간 일할 때도"...공부 대신 '알바'에 방점 둔 유학](#) _2026.3.14.

③ [우수인재 유치 예고했지만...현장선 '글썸'](#) _2026.3.14.

아동 · 청소년 · 청년

["들어가기만 하면 대학생할 풀린다"...신입생 200명씩 물리는 '귀족 동아리'](#)

매일경제_2026.3.11.

[고교생 절반 "공부하다 막히면 'AI' 켵니다"](#)

한국일보_2026.3.11.

[여성 청소년 자살률 10년 새 3배 증가... 청소년 자살 '저연령화'도 두드러져](#)

여성신문_2026.3.13.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경제 · 기업

['20조 잭팟' 현대차 또 일냈다...폭스바겐 제치고 '세계 2위'](#)

한국경제_2026.3.11.

[청년 일자리 온기 돌까... 기업 3곳 중 2곳 "올해 신규 채용 예정"](#)

한국일보_2026.3.10.

[외국인 10명 중 4명 월급 300만원...외국인 근로자 69% "직장에 전반적으로 만족"](#)

조선일보_2026.3.10.

국제 · 환경

[\[더버터\] '미래세대 마음건강'으로 글로벌 자금이 몰리는 이유](#)

중앙일보_2026.3.12.

["아내는 순종해야"...Z세대 남성들, 아버지 세대보다 보수적](#)

동아일보_2026.3.10.

[정치 견해보다 기후 공약에 투표... '기후유권자' 53.5%](#)

한겨레_2026.3.9.

건강

[한국인 10명 중 7명, 잠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 본다](#)

조선일보_2026.3.12.

["부작용 이렇게 심할 줄은"...다이어트약 복용 60% "비만 아닌데 먹어"](#)

중앙일보_2026.3.16.

[유전자가 수명에 끼치는 영향력, 2배 높아져 50~55%...왜 변했나](#)

한겨레_2026.3.11.

기독교 · 종교

[기독교 대학생 절반은 '신앙 초보'... 최대 관심사는 학업](#)

국민일보_2026.3.12.

칼럼

[기술은 발전했는데 MZ는 왜 지치는가](#)

웨슬리안타임즈_2026.3.11.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교회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퓨처처치연구소(FCI),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신규 후원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순천세광교회 (담임목사 김진영)

목회데이터연구소 출간 도서

※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명민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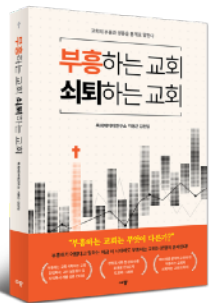


「한국교회 트렌드 2026」 (희망친구 기아대책 공동 출간)

2026년도 예상되는 한국교회 이슈와 트렌드 10가지를 주제로 선정하였는데, 이 책이 목회 전략을 수립하는데 올바른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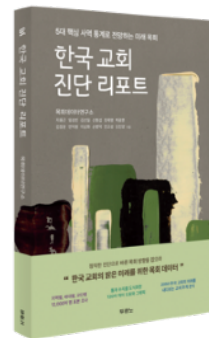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 성도를 총 1,320명 조사하여 각각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 5대 영역별로 성도, 목회자, 청소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Upward

건강한 교회의 맥박
예배

Forward

변화된 삶을 위한 양식
교육

Inward

그리스도의 몸
친교

Outward

예수의 섬김
봉사

Onward

지속되어야 할 대위임령
선교

책 구입 안내



「2025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출간 (비매품)

- 2025년 작년 한해 동안의 <넘버즈>를 모아 엮은, 「2025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VOL.7」을 출간하였습니다. 책 제작을 위해 재정 후원을 해주신 한소망교회(원로목사 류영모, 위임목사 최봉규)에 감사를 드립니다.
- 후원자에게 책을 발송합니다. 책을 받지 못하신 분은 연구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2-322-0726)

연구소 소식

소그룹 솔루션 1Day 워크숍

라잇나우미디어에서 목회자님을 위한 소그룹 솔루션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 1) 일정 : 2026년 3월 19일(목) 10:30~16:00
- 2) 장소 : 비온드처치(구로동로 47길 6, 3층)
- 3) 교육비 & 배네피트 : 5만원(구독교회 3만원), 라잇나우미디어 2주 구독권
- 4) 신청/문의 : 1533-7104

[신청 링크](#)



KCMC [루아흐 : 다시 숨 쉬는 목회] 컨퍼런스

CTS기독교TV가 목회자의 관계·마음·가정을 다시 점검하는 '목회자 자기 관리'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 1) 일시 : 2026년 3월 24일(화) 오후 1시
- 2) 장소 : 장충교회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50)
/ 온라인 (오프라인 참석 및 목회자 부부 동반 참석 적극 권장)
- 3) 참가비 : 무료
- 4) 사전 신청 링크 : kcmc.or.kr
(매주 발행되는 KCMC 연구 보고서 신청도 함께 하세요!)
- 5) 문의 : 02-6333-0088 (CTS 미래교회연구소)

[신청 링크](#)



AI 코파일럿 시대 디지털 목회 전략 웨비나

라잇나우미디어에서 목회자님을 위한 디지털 목회 전략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 1) 일정 : 2026년 3월 26일(목) 14:00~16:00
- 2) 장소 : 온라인(Zoom)
- 3) 참가비 : 무료
- 4) 신청/문의 : 1533-7104

[신청 링크](#)

